

공동체 화합과 일치를 위해 뭉치는 계기

천주교 필라델피아 한인성당, 5년 만에 주립공원에서 야외미사 개최

【펜실베이니아】 천주교 필라델피아 한인성당(주임 김순진 요셉 신부)은 지난 9월 17일 4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년 만에 포트 워싱턴 주립공원에서 야외 미사를 봉헌했다. 이 미사엔 김순진 주임신부와 주국돈 보좌신부가 공동 집전했다. 2019년 본당 주최로 인근 3개 주의 4개 성당이 합동으로 야외미사를 계획했으나 그 날 비가 많이 내려 취소됐고 그 후 2년은 팬데믹으로, 작년엔 거센 비바람과 추위로 준비한 야외미사를 성전에서 봉헌했다.

이 날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다. 따사로운 가을 햇볕이 공원 파빌리언에 설치된 제대 주변을 감췄고 신자들은 오랫동안 열린 야외미사에 김 신부가 직접 한국에서 구입해 온 조끼를 15개 구역 3팀으로 나눠 색깔별로 입고 서로 결속을 다졌다. 김 신부는 강론에 앞서 “오늘 쉬고 있던 신자들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왔다. 처음 이민 와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버티며 도움이 절실할 때 또 한 번이라도 더 함께 어울리고 싶어 이런 행사를 많이 기다렸지만 이



5년 만에 주립공원에서 열린 천주교 필라델피아 한인성당 야외미사에서 김순진 신부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제는 아쉬운 게 없고 절박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오라고 하니 귀찮아 한다. 이게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다. 신자들이 힘들고 귀찮다고 한다면 이 행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 모임으로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단단히 뭉치는 계기가 된다면 또 희망을 갖고 내년에도 행사를 존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강론에서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

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다. 그분들이 하느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고 우리는 모든 순교자들을 기리는 날이다. 어제 신자 27명과 함께 2주 동안 성모 발현지 메주고리에, 루르드, 파티마 성지순례를 다녀 왔다. 메주고리에는 처음인데 성모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발현하실 때 어떤 언어로 말씀을 건네셨을까 문득 궁금했다. 루르드, 파티마 성모님은 그 나라 언어로 소년 소녀들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

는 메시지를 남기셨을 것이다. 과달루페 성모님은 인디언 출신 후안디아고에게 발현하셨을 때 당시 아즈텍 제국 공용어였던 나후아틀어로 사용하셨다고 한다. 발현지에서 새삼 느꼈던 것은 통일된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으로 자기 삶을 통해 하느님을 증거하고 찬미하며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넘치는 것은 넘치는 대로, 하느님께서 다 아시고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제 순교 177주년 되는 날,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상이 설치되어 축복식이 열렸다. 김대건 신부는 우리와 같은 모습 그대로, 각 나라의 성인들도 그 나라의 모습을 담아 복음의 빛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다. 피로 지켜 낸 순교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튼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사 후 본당에서 마련한 점심, 각종 음료수, 과일 등이 풍성하게 차려졌고, 식사 후 팀별로 나눠 사목회와 청년회의 경기 진행으로 각종 게임과 상품들이 한껏 흥을 돋구었으며 야외용 의자가 참가자 모두에게 선물로 제공되었다.

양경숙 명예기자